

研究論文

이상재의 국가건설 사상: 독립협회 활동기를 중심으로*

이 승 현**

I. 서론	IV. 입헌군주국가의 모색
II. 대내외 위기인식과 진단	V. 결론 근대적 입헌 군주 국가건설의 좌절
III. 자강을 통한 자주독립	

I. 서론

이 글은 독립협회를 이끈 세 명의 주요한 인물¹⁾ 중에서 이상재가 근대적인 국가건설을 위해 설정했던 정치 노선과 주요한 정치 활동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상재의 생애 전체에서 독립협회기에 주목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상재의 생애는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3기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평범한 관료로서 살아간 시기, 둘째는 독립협회 시기, 셋째는 국권상실 이후 일제시대 기독교 운동시기이다. 국가에 대한 자각과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운동은 독립협회시기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일제시기에는 이미 국권을 상실한 시기로 기독교에 투신하여

* 이 논문은 2002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3-BS1002)

** 국회도서관 연구관 한국정치사상 전공

1) 문일평은 “갑신개혁당에 사거두가 있는 것과 같이 독립협회는 삼거두가 있었나니 서재필 윤치호 및 이상재이다... 서윤이(徐尹李) 삼거두는 참말 독립협회와 서로 떠나지 못할 관계를 가진 이들로 독립협회를 말할 때 이 거두들이 저절로 생각난다. 서씨는 창시자라고 한다면 윤씨는 계승자요 이씨는 확충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文一平, 『韓美五十年史』(朝光社, 1945), 208~209쪽

사회운동에 전력하였기 때문에 국가건설사상의 측면에서는 크게 조명할 부분이 없다. 따라서 독립협회 시기에 주목하였다.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중요한 전환점은 박정양과의 만남이었다. 그와 인연이 닿아 그의 집에서 오랜 시절 지냈으며 그와의 인연을 계기로 관직에 나아간 이래 박정양이 사망할 때까지 그와 함께 보내게 된다. 이상재의 생애 중 전반부는 박정양과의 만남을 계기로, 관료로 봉직한 비교적 평탄한 삶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인생에서 두 번째 중요한 전환점은 독립협회에 참여한 것이었다. 현대적 시각으로 볼때 차관급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한 인사로 윤치호를 꼽는다면 국장급 관료로 시민운동에 참여한 인사로 이상재를 꼽을 수 있다. 이상재가 독립협회에 참여할 당시만 해도 관료의 신분으로서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독립협회 활동 이후 이상재는 개인으로서는 고난의 길을 가게 되었고 이 고난은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었다. 49세 때에 반정부 혐의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후 그의 인생은 가시밭길을 걷게 되었다.²⁾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그의 세계관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정동구락부 회원이기도 했던 이상재는 독립협회의 초창기부터 위원으로 활동³⁾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독립협회의 회계책임을 맡기도 했고, 총대위원을 맡기도 했으며, 독립협회의 맡기에는 부회장직을 맡기도 했다. 윤치호 회장, 이상재 부회장 체제로 되면서 독립협회는 완전히 정치단체로 바뀌었다⁴⁾고 평가될 만큼 이상재의 활동은 두드러진 것이었다. 이상재는 독립협회 제일선의 총사령관이 되어 정열적으로 활동하였으며 특히 만민공동회 시기에 커다란 활약을 하다가⁵⁾ 구속되기도 했다. 이상재는 독립협회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검토해야 할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이상재의 국가건설 사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상재의 사상이 독립협회의 세 분과 중 중요한 한 흐름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서재필·윤치호의 서구 시민사상의 영향을 받은 세력, 남궁억·정교 등의 개신유학 전통의 영향을 받은 세력과 구별

2) 金乙漢, 『月南先生逸話集』(京郷新聞社, 1956), 28쪽.

3) 『독립신문』 1896년 7월 4일자 (제1권 제39호).

4) 李光麟, 「月南 李商在」 『開化期の人物』(延世大學校 出版部, 1993), 255쪽.

5) 전택부, 『월남 이상재의 생애와 사상』(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50-54 쪽

되는 제3의 길을 대표하는 사상가로 보았기 때문이다. 서재필의 노선이나 황성신문 계열과는 구별되면서 중요한 한 흐름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부진하다는 점에서 이상재의 국가건설 사상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상재는 독립협회 활동기에 그렇게 많은 글을 남기지는 않았다. 독립협회결성기로부터 국권을 상실한 시기까지 국가건설사상과 관련 있는 1차 기록을 추적해 보면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독립문 건설소(獨立門建設疏), 내각 총무국장을 사퇴하는 소(辭內閣總務局長疏), 중추원 의관을 사퇴하는 소(辭中樞院議官疏), 상정부서(1)(2)(上政府書(一,二)) 정도가 있다. 독립문 건설소, 상정부서 (1) 과 (2) 가 비교적 당시 상황에 대해 체계적이고 소상한 의견을 담고 있다. 즉 주요한 분석대상이 될 수 있는 문건이다.

그런데 상정부서 (1)의 경우는 독립협회 활동기에 지은 것으로 보는 견해와 독립협회 해산이후 1904년에 작성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⁶⁾ 상정부서 (2)의 경우도 독립협회 활동기에 지은 것으로 보는 견해와 1907년 또는 1904년에서 1910년 사이에 쓴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후자의 해석인 이광린의 견해를 인정한다면 이상재의 문건 중에서 독립협회 활동기에 나온 것 중에서 의미 있는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독립문 건설소와 내각 총무국장을 사퇴하는 소 정도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문건으로 그의 사상을 추적해 보는 일이 지난한 일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독립협회 해산 이후에 나온 것일지라도 상정부서 (1)이나 상정부서 (2)는 모두 독립협회 활동을 거치면서 이상재의 사상이 변화되어온 모습을 담은 것으로는 볼 수 있다. 그리고 아직 국권을 상실하지 않고 근대민족국가를 건설해 보려는 최후의 몸부림이 진행되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독립협회의 국가건설 사상과 일정하게 연관되어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 문건들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상재가 직접 남긴 기록은 많지 않아서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기록의 부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이상재의 활동이다.

6) 慎鋪廈, 『獨立協會研究(一潮閣 1994), 105 쪽

7) 李光麟, 「月南 李商在」 『開化期の人物』(延世大學校 出版部), 1993, 267~270쪽. 이광린의 해석이 맞다고 볼 수 있는 단적인 예로 본문 중에 어공원에 대한 묘사가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신설된 어공원”이라고 적고 있는데 어공원은 1904년에 설치되었다.

남은 기록이 많지 않은 반면 이상재의 활동은 정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재는 독립협회의 부회장으로서, 만민공동회의 사회자로서 그리고 주요한 사안의 총대위원으로 활동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이를 추적하여 그의 국가 건설 사상을 구성하는데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와 활동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 방법으로는 스프라겐스의 진단과 처방론을 활용할 것이다.⁸⁾ 스프라겐스의 진단과 처방론을 본 연구의 분석틀로 사용하는 이유는 첫째, 이상재의 사상과 활동 전반을 진단과 처방이라는 명확한 틀로 분석함으로써 그의 사상이 갖는 전체적인 모습을 체계적으로 그려낼 수 있으며, 둘째 진단과 처방으로 내놓은 방안들이 얼마나 현실과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의 분석틀에 따라 구성된 이 글의 구성을 보면, 제2절은 이상재가 느낀 위기인식과 진단 부분이다. 3절과 4절은 이상재의 처방부분이다. 그는 자강을 통한 자주 독립을 주장했고 그 목표로 설정된 것이 입헌 군주국이었다. 이러한 처방에 따른 실천운동으로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이상재에 관한 기존 연구를 일별해 보면 많지는 않지만 꽤 이루어져 있다. 초기 연구로는 김유동,⁹⁾ 이시완,¹⁰⁾ 공보실,¹¹⁾ 그리고 김을한¹²⁾의 저작 등이 남아 있다. 이 밖에도 1980년대 이후 나온 것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월남 이상재의 생애와 사상』¹³⁾, 『월남 이상재 연구』¹⁴⁾에 실린 일련의 연구, 「월남 이상재」¹⁵⁾가 있다. 『월남 이상재의 생애와 사상』은 전택부의 업적으로서 이상재의 출생으로부터 최초의 사회장으로 치루어진 그의 마지막까지를 추적하고 있다. 매우 방대한 저술로서 이상재의 생애 전반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섭렵해야할 필수적인 저작이다.

8) 李鍾殷(역), 『현대 정치이론의 이해』(나남, 1991), Thomas Arthur Spragens, Jr. *Understanding Political Theory*, St. Marin's Press, 1991. 이 방법을 국가건설사상 연구에 활용한 예로는 이종은 「유길준의 국가건설사상」 『한국정치학회보』, 38집 1호 (2004)이 있다.

9) 金迪東, 『月南李先生實記』(月南李先生實記 出版部, 1927).

10) 李時琬, 『月南李商在』(月南社會葬委員會, 1929).

11) 公報室, 『月南 李商在先生略傳』(공보실, 1956).

12) 金乙漢, 『月南先生逸話集』(京鄉新聞社, 1956); 김을한, 『월남 이상재 일대기』(정음사, 1976).

13) 전택부, 앞의 책

14) 월남 이상재선생 동상건립위원회, 『月南李商在研究』(路出版, 1986).

15) 李光麟, 「月南 李商在」 『開化期の 人物』(延世大學校 出版部, 1993).

『월남 이상재 연구』는 이상재에 관한 분야별 연구를 망라하고 있다. 여기에 실린 논문들을 일별해 보면, “개화기 지식인 이상재론”¹⁶⁾ “독립협회와 월남 이상재”¹⁷⁾ “청년운동가 월남 이상재”¹⁸⁾ “민족언론과 월남 이상재”¹⁹⁾ “신간회와 월남 이상재”²⁰⁾ “월남 이상재의 사회교육사상”²¹⁾ 등이다. 한편 한편 주옥같은 연구들로서 각 분야별 이상재 연구를 대표할 만한 업적들이다.

이 중에서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논문이 「독립협회와 월남 이상재」라고 할 수 있다. 독립협회사기 이상재의 활동을 추적하고 분석한 이 논문은 독립협회의 활동 맥락을 따라가면서 이상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독립협회사기 이상재의 정치 활동을 성공적으로 복원하고 있다.

「월남 이상재」는 이광린의 업적인데 개화기의 이상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 시기는 1909년까지로 본 연구 보다 좀더 범위가 넓고 연구의 초점은 개화기 지식인으로서 이상재의 활동이 변해가는 모습을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이상재의 국가건설 사상을 본격적으로 조명한 연구는 전무하다. 독립협회에서 이상재가 차지한 위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백으로 남아 있는 이 분야를 추적한 최초의 시도가 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II. 대내외 위기 인식과 진단

1. 국권상실의 위기

독립협회가 결성되던 당시 한국은 동아시아 각국이 근대화를 위해 진력하던 시기였다. 이미 서양 열강들은 과거 몇 세기 동안 근대 국민국가로의 발전과정을 지

16) 申一澈, 「開化期知識人 李商在論」, 『月南李商在研究』(路出版, 1986).

17) 愼鏞廈, 「獨立協會와 月南李商在」, 『月南李商在研究』(路出版, 1986).

18) 李信行, 「靑年運動家 月南李商在」, 『月南李商在研究』(路出版, 1986).

19) 劉載天, 「民族言論과 月南李商在」, 『月南李商在研究』(路出版, 1986).

20) 李文遠, 「新幹會와 月南李商在」, 『月南李商在研究』(路出版, 1986).

21) 兪道鎭, 「月南李商在의 社會教育思想」, 『月南李商在研究』(路出版, 1986).

속해 왔다. 서구 열강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목표 하에 대외적으로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본 역시 서구적 근대화를 국내적으로 추진하였고 서구의 방식을 차용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으로 세력권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 속에서 한국은 국가적 생존마저도 보장받기 어려운 정치적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제질서의 흐름을 진지하게 자각한 이상재가 당시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였을까? 이상재는 당시의 위기 인식을 살펴 볼 수 있는 기록을 남긴 바 있다. 이상재는 “요새 국가의 형세를 보옵건대 자못 위태로워서 모든 행동이 크게 백성들의 바라는 바에 어긋나 있습니다”²²⁾라고 했다. 국내적으로 민심 이탈 현상을 관찰하고 국가가 위기에 빠져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그는

서리도 밟으면 얼음으로 굳어지는 것은 필연한 이치입니다. 하루 이틀 한가지 일, 두 가지 일이 이렇게 거듭되고 보면 몇 일 몇 달 사이에 온 나라의 권리를 모두 남에게 내주고 자루를 빼앗기는 뉘우침이 생기지 않을까 어떻게 알겠습니까?²³⁾

라고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열강에게 국권을 침탈당하여 주권마저도 상실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그는,

요새 정국의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옵건대 조약을 체결한 여러 나라가 서로 눈을 흘겨보며 총칼과 전함과 포차가 국경 근처에서 부단히 왕래하며 서로 이익을 다투어 각각 토지를 점령하고 있어오는데 오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옵니다. 이런 때를 당하여 편안함만 일삼고 발분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같으면 입으로 형언할 수 없는 무궁한 화가 반드시 올 것이옵니다.²⁴⁾

22) 李商在, 『獨立門建設疏』.

23) 李商在, 『獨立門建設疏』.

24) 李商在, 『辭內閣總務局長疏』.

라고 말하고 있다. 당시 국제정세가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음을 감지하고 힘을 길러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상재는 안으로 정부가 민심에 어긋나게 정책을 펼쳐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밖으로 외국의 침략 앞에 국권을 모두 내주고 결국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위기 상황에서 독립협회는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시도를 하였다. 정치적 근대화를 논의하면서 국민국가의 건설목표를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²⁵⁾ 근대적 국민국가의 건설을 독립협회의 중요한 목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독립협회는 대외적 모순에서 발단된 위기의식을 국민적 단합과 구국지지의 활력소로 삼고 자주주의 주체를 전체 국민에게로 귀일시킴으로써 국민국가의 건설을 촉구하였으며 대외적인 자주주의 욕구실현을 안으로 향한 내실 자강에서 찾았다. 이 때문에 대외적 모순에 부정적으로 반발하지 않고 그것을 대내적 발전의 계기로 삼는 자강의 민족주의를 정립할 수 있었다.²⁶⁾

독립협회는 당시의 한국을 큰 위기 속에 있다고 보았다. 독립협회는 열강의 약육강식론에 의해 한국이 식민지 속국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인식했다. 왜냐하면 나라가 나라로 되기 위해서는 자주 국권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한국은 열강의 침략으로 자주 국권이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상재가 말하는 자주국권은 첫째 자주 독립하여 타국에 의뢰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자수하여 정법을 온 나라에 퍼는 것이다. 즉 자주 독립하여 주권을 전 국토위에 행사하는 것이다.

2. 자립(自立)과 자수(自修)의 결여

진단은 넓은 의미로서는 환자의 병의 실태를 모든 면에 걸쳐서 판단하는 일을 말하며, 판단하는 내용은 병명에서부터 합병증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판단의 기초적인 자료를 얻기 위하여 주 증세를 제일의 실마리로 하고, 발병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병의 경과를 상세하게 문진(問診)에 의하여 조사하며 현재 신체의

25) 韓興壽, 『近代韓國民族主義研究』(延世大學校出版部 1977), 3 쪽

26) 韓興壽, 『近代韓國民族主義研究』, 198쪽.

상태를 모든 각도에서 검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상재의 사상과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독립협회의 진단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그의 상황인식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협회가 대외적 상황에 내린 진단은 절박함 그 자체였다. 한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대외적 상황이 절박하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독립협회가 대외적 상황에 대해 내린 진단은 첫째 제국주의가 침투해 오고 있다, 둘째 특히 러시아를 경계해야 한다. 셋째, 동양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²⁷⁾

독립협회가 열강의 국권침탈에 위기의식을 가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열강이 본질적으로 제국주의라는 점을 인식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었다. 독립신문 1896년 11월 12일자 논설, 1899년 1월 30일자 논설, 1899년 6월 17일자 논설 그리고 1899년 8월 1일자 논설에 그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독립협회는 제국주의국가는 선진국으로서 미개국의 개명을 유도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즉 제국주의의 침략논리를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침투 목적이 수탈하는데 있지 않고 보호하는데 있다고 인식했다. 또한 제국주의국가가 후진국에 개입하는 자체를 당연하게 생각했으며, 제국주의 국가에 국권을 침탈당하는 것을 생존권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명예에 관계된 문제로 인식하였다.²⁸⁾ 이러한 인식은 남궁억이 주도하여 발행한 황성신문에 이르러 제국주의의 본질을 인식하는 수준으로 진척이 있었다. 황성신문 1898년 9월 30일자 논설은 어떤 나라의 속국이 되면 내정을 간섭받는 등 어려움이 있으며 독립국가가 되지 못하면 임금이고 신하고 몸 둘 곳이 없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독립협회는 러시아에 대해 부정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었다. 황성신문이나 독립신문의 논설을 통해서 보면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독립협회는 러시아가 유럽에서 부동항을 얻으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동양이나 점령하여 볼까 노리고 있다고 인식했다. 유사시 동북아 강산을 수중에 농락코자 한다고 본 것이다

독립협회는 동양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독립협회는 서세 동점을 직시하

27) 金珉煥, 『開化期 民族紙의 社會思想』(나남출판 1995), 50쪽

28) 金珉煥, 『開化期 民族紙의 社會思想』, 52쪽.

였고 이는 중국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동양의 중심국가는 중국인데 중국이 동양 위기의 관건이라고 보았다. 황성신문 1899년 6월 13일자 논설은 세계에 병립하는 자는 하나도 청국이요 둘도 청국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자수 자립여부가 동양 위기 극복의 관건으로 보았다. 독립신문은 중국이 구습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고, 황성신문도 이와 맥을 같이 하였다.

대내적 상황에 대해 내린 진단 역시도 매우 절박하였다. 대내적으로 급격한 시변에 접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자강하는데 있어서 대응력이 미비하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²⁹⁾ 대내적 대응력의 부족은 국가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관계의 결핍에서 찾고 있다. 그 책임은 군주보다는 정부와 인민에게 있다는 시각이다. 대황제 폐하께서는 지극히 착하시고 밝으셔서 나라가 진보하여 문명 개화한 나라가 되기를 주야로 바라지만 그 아래 정부와 인민이 제 직분을 다하지 못해서 정치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대내 상황에 대한 진단은 첫째, 애국심이 부족하다. 둘째, 민권(民權)이 신장되지 못했다. 셋째, 경제적으로 빈곤하다. 넷째, 봉건유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진단 결과 독립협회는 애국심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충군 애국론을 주장하게 되었다. 민권이 신장되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권신장론을 개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산업진흥론을 개진하게 되었다. 끝으로 사회적으로 봉건 유제가 남아 있으므로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내외 상황에 대한 독립협회의 진단이 비교적 체계적인데 비해 이상재가 기록으로 남긴 문건속에서의 진단내용이 독립협회의 진단만큼 체계적이지는 않다. 이상재는 “나라가 나라꼴을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립해서 딴 나라에 의뢰하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자수하여 정법을 한 나라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상천이 우리 폐하께 주신 하나의 큰 권리이니 이 대권이 없으면 그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³⁰⁾라고 하여 자립과 자수의 결여가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상재는 계속하여 당시 상황을 “벼랑에 선 것처럼 위함”한 것으로 진단하고

29) 金珉煥, 『開化期 民族紙의 社會思想』, 126쪽.

30) 李商在, 『獨立門建設疏』.

있다. 그는 “전국의 주권을 모두 다른 나라에 주어 큰 칼을 자루는 남에게 주고 거꾸로 칼날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 것이다. 그는 당시 한국의 국가존망이 위태롭다는 위기인식을 갖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단을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주권이 위기에 처했음을 강조하였다. 당시 한국은 자립하지 못하고 타국에 의뢰하여 주권이 크게 위태롭게 되었다고 보았다. 특히 외국이 군사권과 재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칼날을 쥔 형국이라는 것이다. 자립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둘째 백성이 도탄에 빠져 국가가 위태롭게 되었음을 강조했다. 당시 한국은 내정개혁과 준법이 필요한데 개혁은 되지 않고, 법률은 잘 지켜지지 않아 국가가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수에 힘쓰지 않음으로써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타국의 내정간섭, 민심 이탈, 법치가 안되는 상황의 원인을 “자립과 자수의 결여”로 인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³¹⁾ 이상재는 당시 한국이 안팎으로 위기에 처했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독립협회의 진단만큼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이상재의 진단, 특히 자립과 자수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진단은 매우 정확한 것이었다. 이후 자수는 자강론으로 자립은 자주독립론으로 연결되어 발전했다. 자수에서 출발하는 자강론은 이후 애국계몽단체들의 일반적인 활동목표가 될 만큼 보편적인 것으로 자리잡게 되지만 이상재 단계에서는 자강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인 실력양성을 위한 실천운동으로는 연결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하다고 보았던 의회설립운동은 실천에 옮겨졌다.

III. 자강을 통한 자주독립

이상재는 자립과 자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당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자강을 통한 자주독립을 내세웠다. 이상재의 처방책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독립협회의 처방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립협회가 활동하던 당시 한국은 국권상실의

31) 李商在, 『獨立門建設疏』.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린 처방은 자주와 진보로 정리할 수 있다.³²⁾ 여기서 자주는 반침략을 포함하며, 진보는 반봉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독립협회가 주장했던 대외적 자주와 대내적 진보는 이상재가 말하는 자립과 자주와 다르지 않다. 이상재의 대외적 처방인 자립은 자주독립론으로 정리할 수 있고, 대내적 처방인 자수는 자강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자주독립론

이상재는 한국의 대외적 자주성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자주독립론을 내세웠다. 이상재의 자주독립사상은 그의 독립문 건설소에 잘 나타나 있다. 이상재는 고종에게 일본, 청국, 러시아 혹은 미국과 같은 외세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민과 함께 할 것을 강조했다. 군민이 일치되어 협력하는 것만이 외세의 내정간섭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본 것이다.³³⁾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말고 자주하고 안으로 법치를 실시하여 진보한다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한국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가의 자주독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하는 이 문건을 “자주독립을 수호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알리는 구국운동선언”으로 규정할 정도이다.³⁴⁾

자립에 대한 이상재의 인식은 후에 쓴 상소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업신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을 침해할 수 없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자모하는 정치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³⁵⁾라고 반문하고 있다. 스스로 똑바로 서지 않으면 개인이건 국가건 외부의 침략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상재의 자주의식은 만민공동회 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났다. 독립협회는 근대적 자주독립국가를 형성하고, 다수의 힘으로 개혁사상을 대중화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을 자주독립을 가능케 하는 목표로 설정하고

32) 韓興壽, 『近代韓國民族主義研究』, 31쪽.

33) 李商在, 『獨立門建設疏』.

34) 愼鏞廈, 『獨立協會와 月南 李商在』, 『月南李商在研究』(路出版 1986), 37쪽

35) 李商在, 『上政府書(一)』.

있기 때문에, 독립협회는 다양한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만민공동회는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세력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자주독립과 주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상재는 만민공동회를 통해 열정적인 활동을 했고 결국 감옥에 투옥되기 까지 했다. 이상재의 이런 활동들은 모두 자주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자주 독립을 지키기 위한 대외적 처방으로 이권 침탈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쳤다. 이상재는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고자 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임시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는 등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³⁶⁾ 독립협회 활동시기에 외국의 이권 침탈에 저항했던 이상재는 후에 일본이 산림 천택과 원야 개발권을 요구하는 등 러시아와 유사한 시도를 하자 역시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쳤다. 이상재는 정부에 상소문을 올려 서양과 서양으로부터 배운 일본을 포함한 서세 동점을 경고하고 이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³⁷⁾

이상재는 자주 독립을 근대국가 건설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았다. 자주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군과 민이 함께 힘을 합칠 때 가능한 것이었다. 군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민의 힘 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군민이 일치단결할 때 자주독립이 가능하다는 논리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민권(民權) 군권(君權) 동시 강화론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인 것이다.

이상재는 1898년 8월 28일 독립협회의 부회장겸 평의원 대표가 됨으로써 윤치호 회장과 함께 독립협회를 이끌게 되었다. 이는 러시아에 대항한 자주독립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재는 구국운동 선언 상소에서부터 러시아 세력과 일본세력이 철수할 때까지 시종일관하여 이를 지도하고 민중과 함께 투쟁함으로써 자주독립을 향한 노력을 지속하였다.³⁸⁾

2. 자강론

이상재는 자주독립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자강론을 제기하였다. 자강론은

36) 李光麟, 「月南 李商在」, 257 쪽

37) 李商在, 「上政府書(一)」

38) 愼鏞廈, 「獨立協會와 月南 李商在」, 41 쪽.

서구 다윈주의의 적자생존론에 근거하고 있다. 즉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국가는 생존경쟁에서 패퇴하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하루 속히 환경에 적응하는 노력, 즉 자강 개혁의 노력을 해야 멸망하지 않고 국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자강론은 국민국가의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국력증진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자강개혁은 자립적 국민국가를 가능케 하는 실천적 방안의 성격을 띠고 할 수 있다. 국민국가는 일정한 경제적·사회적 토대 위에 존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력은 국가존립의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립협회가 각종 경제적 개발 이익을 외국에 넘기는 것에 반대하고, 산업개발론을 통해 자주독립의 경제적 기초를 형성하고자 했던 것은 실천방안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과정에서 이상재는 활발하게 활동한 바 있다.

이상재는 독립협회의 자강인식을 거의 그대로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가 자강에 관한 문서상의 기록을 많이 남기지는 않았지만 많은 활동을 펼쳤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독립협회가 활동하던 기간은 국제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열강간의 세력균형을 이루던 시기였다. 이 짧은 세력균형의 시기동안 한국은 부지런히 자강개혁하여 미래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 독립협회의 기본적인 인식이었다.

이상재는 우선 외국에 대한 이권 양여를 강력히 반대하는데서 자강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당시 정부가 러시아에 재정권과 군사권을 거의 빼앗기다시피 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있다.³⁹⁾ 자강개혁 중에서 특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자립하고 자강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제 자강에 대한 이상재의 인식은 1904년 이후의 기록에서 좀더 본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이상재는 정부에 올린 상소문에서 정부의 비 자주적 이권양여를 규탄하고 있다. 그는

근년 이래 우리나라 국유 광산이라든지 철도 기지라든지 서북 삼림이라든지 연해 어업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한 권리 취득에 대하여 외국인들이 요청한 것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 가지라도 허락해 주지 아니한 것이 있었습니까?⁴⁰⁾

39) 李商在, 「獨立門建設疏」.

40) 李商在, 「上政府書(一)」.

라고 반문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독립협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상재는 경제적 이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도 비판하였다. 그는,

전일 광산, 철도, 삼림, 어업 등을 넘겨줄 적마다 정부는 언제나 그 일을 좋아서 한다고는 한번도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단행하는 마당에는 구차스레 우물쭈물해버리거나 우선 부결해놓고서 질질 끌다가 압력만 작용하면 그때 에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 됨을 다행히 여겨, 종말에는 허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때에 있어서는 문득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였고, 혹시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박하기를, 우리가 간사해서 그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전국의 안위와 존망이 달려 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허락해 주지 아니하는 것이 진정으로 다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⁴¹⁾

라고 따끔하게 지적한 것이다. 그는 “광산, 철도, 석탄, 삼림과 차관 차병 등 정부의 모든 조약 사무는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말 것”을 주장한 바 있다.⁴²⁾ 경제적 이권이 외국에 양여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한 것이다. 또한 “국가 재정은 그 세금을 막론하고 탁지부가 총괄하게 하고 다른 부, 부나 사사로운 회사에서 간섭을 못 하게 하며 국가의 예산과 결산도 국민에게 공개할 것”⁴³⁾을 주장하였다.

이상재는 외국에 대한 이권양여를 반대하는 운동보다 좀더 적극적인 자강운동이라 할 수 있는 황무지 개간론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 산림 천택 1건만 하더라도, 국내에 산재한 황무지는 국내도처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어서 먹을 것도 없고 직업도 없기는 국민 개개가 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밥도 없고 직업도 없는 이 사람

41) 李商在, 「上政府書(一)」

42) 전택부, 『이상재 평전』, 87 쪽

43) 전택부, 『이상재 평전』, 87 쪽

들이 국내 도처에 있는 황무지를 개간한다면 토지마다 비옥하게 될 것이며, 집집마다 넉넉해질 것입니다⁴⁴⁾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다. 이상재는 당시 현실을

혹시 일 개인이라도 자력으로 손 바닥만한 땅 이라도 개간하기만 하면, 즉각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해 가고, 곧 그 뒤를 따라 세력가들이 빼앗아 가니, 이것을 어떻게 견디어 낼 수 있겠습니까?⁴⁵⁾

라고 반문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신설된 어공원을 폐지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경제자강에 관한 이상재의 활동을 토대로 살펴보면 그의 인식의 변화과정을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다. 이상재는 독립협회 활동기에 이미 재정권을 외국의 손에 넘긴 것에 대해 독립문 건설소에서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독립협회 해산 이후인 1900년대 초에 오면 고용 창출의 연쇄효과도 언급하게 된다. 그는 황무지를 개간하면 국민들이 일정한 직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국가가 부강해 지는 기초는 바로 고용창출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시행하지 않는가를 통박하는 인식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904년에서 1910년 사이에 오면 구체적인 경제 자강인식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재는 국방분야 자강에 관해서는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몇 차례 관련 기록을 남겼으므로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고민해 볼 것이다. 근대 국가는 관료제, 특히 상비군의 유지 및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진행되었다. 따라서 자주독립의 이념은 이러한 물질적 토대의 구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독립협회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상재는 독립문건설소에서 군사권을 외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군사력 증진에 대한 인식은 당시 러일의 세력각축을 직접적인 계기로 한다. 러일전쟁이 한반도위에서 일어날 것을 염려하였고,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44) 李商在, 「上政府書 一」

45) 李商在, 「上政府書 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상재는 당시 상황을 “오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날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고 “편안함만 일삼고 발분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같으면”⁴⁶⁾ 큰 화를 당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편안함을 일삼지 말고 발분하여 자강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상재는 자주독립의 이념을 주장했다. 자주독립은 군사력의 유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독립협회가 주장했던 근대 국방론은 외국군이 우리 영토에서 전쟁을 하지 못하게 막으며, 열강의 침략에 대비한 강병책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해군을 창설하여 해육군으로 해안을 사전에 방지할 것, 機器府를 보수하고 확장할 것, 대륙병제에 입각해 강병 훈련을 할 것, 무관학교를 설립할 것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재의 국방에 대한 인식이 독립협회의 인식과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이상재가 독립협회의 인식수준을 크게 넘어서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독립협회의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한 예는 독립신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독립신문』 1987년 5월 25일자 논설에서 독립협회의 군대양성안은 외국군의 침략에 대비하기보다 동학혁명군의 잔여세력과 의병을 탄압하는 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동학혁명군의 잔여세력과 의병을 탄압하기 위해 외국군대의 국내 주둔을 다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유독립의 이념과 현실인식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념의 피상적 이해는 독립협회의 사상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재가 이런 견해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독립협회가 이런 수준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상재의 인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독립협회 활동당시 이상재의 자강인식은 적극적인 차원보다는 방어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여 자강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상재의 자강인식은 외국에 재정권을 넘기고 군사권을 넘겨준 것을 비판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자강개혁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6) 李商在, 『辭內閣總務局長疏』.

IV. 입헌 군주 국가의 모색

이상재는 당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정치 분야에서는 입헌 군주 국가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상재가 주장했던 이상적인 국가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국가의 권력구조로서 제시했던 군권과 민권의 균형론을 분석해 볼 것이다. 끝으로 이상재가 입헌군주제로 가기 위해 실천에 옮겼던 사례로서 의회 설립운동을 추적해 볼 것이다.

1. 이상적 국가상

국가건설을 둘러싼 이상적인 형태는 독립협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구상이 혼재하고 있었다.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일부 진보적인 사람들은 공화제까지 나아가고 있었다. 독립협회는 궁극적으로 근대적 국민국가를 지향점으로 삼았다. 독립협회는 새로운 국민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전근대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일본과 같은 근대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독립협회의 국가건설 인식은 근대적인 민권국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실로서 당시 한국은 전근대적인 군주국가였다. 독립협회는 사상적으로 민권과 군권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 독립협회가 민권과 군권사이에서 갈등했다는 것은 근대성과 전근대성 사이에서 갈등한 것과 다름 아니며, 이는 이상과 현실사이에서의 갈등이었다.

이러한 갈등은 국가건설에 있어서도 근대적인 자유주의적 국가원리와 전근대적인 군주제적 국가원리 사이에서 긴장상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인적으로 볼 때 독립협회 내에서 서재필, 윤치호등은 서구 사상의 흐름을 반영하였고, 남궁억, 정교등 황성신문계열은 개신유학적 전통을 강조하여 이 두 흐름이 각각 자기 위치를 견지하고 있었다. 이상재는 바로 이 두 흐름을 합류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사상적 흐름속에서 이상재가 구상한 이상적인 국가상은 무엇이었을까? 이상재의 사상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계기중의 하나인 미국견문은 이상재의 이상적인 국가상 형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이상재는 이미 1884년 박정양을 수행하여 미국을 방문한 바 있었다. 이때의 경험은 입헌 군주제나 민주적 정치참여를

허용한 계몽 군주제에 대한 선견(先見)을 갖게 해 주었다⁴⁷⁾ 이 평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상재는 일찍이 미국을 방문한 경험을 갖고 있었고 미국에서 공화제 정치체제를 목격할 수 있었다. 공화제를 목격한 이상재는 조선의 현실에 맞는 정치체제로 입헌군주제나 계몽 군주제를 구상할 수 있는 폭을 갖게 된 것이다.

김을한은 이상재가 “부회장의 중임을 맡아 상하협력 군민공치를 크게 외치고 개국진취와 자유민권사상을 고취하였”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⁴⁸⁾ 이 평가 속에는 이상재가 구상했던 이상적인 국가의 중요한 요소들이 모두 들어 있다. 군민 공치, 즉 입헌 군주제를 이상적인 국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상재는 당시 한국이 나라가 아닌 이유를 몇 가지 지적한 바 있다. 뒤집어 말하면 이 이유들이 충족되면 이상재가 생각하는 근대적 국민국가의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재는 자립과 자수라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아래로 민권과 위로 군권이 조화를 이룬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⁴⁹⁾ 자립의 기본 요건으로는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특히, 재정권 병권 그리고 관리 임명권을 강조하였다. 자수의 기본 요건으로는 장전과 법도를 세우는 것을 강조했다. 이상재는 자립과 자수를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헌군주제 국가를 세우는 것이 당시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국가형태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상재가 근대적인 국민국가론 기본 요소인 대외적 자주성, 주권의 소재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보여주었는가? 이상재는 대외적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대외적 자주성을 확보하는 요체를 황제의 결단과 국민의 지지에서 찾았다. 이상재는 주권의 소재지도 황제와 국민 모두를 강조했다. 정부형태는 입헌군주제로서 민주공화제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주권의 소재문제는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쟁점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주권의 소재문제와 관련하여 독립협회는 복합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당시 수구파들은 전제군주제를 전제로 하여 민권과 군권이 상충하는 것으로 보았다. 주권이 군주에게 있는 것인데 이를 백성에게 허용한다면 그 만큼 군권을 제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군권과 민권의 충돌불가피론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독립협회나 이

47) 申一澈, 『開化期知識人 李商在論』, 『月南李商在研究』(路出版 1986), 13 쪽

48) 金乙漢, 『月南先生逸話集』(京郷新聞社, 1956), 27-28쪽.

49) 李商在, 『獨立門建設疏』.

상재는 민권의 신장이 반드시 군권과 상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상재는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제 또는 대의군주제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을 하고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민권의 신장을 주장한 것이다.

이상재는 제도적으로 삼권이 분립된 전형적인 근대 국민국가는 아니지만 기능적으로라도 삼권이 분할된 근대적인 입헌군주제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다. 즉 중추원이 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고, 의정부는 내각으로 하여 행정부 기능을 담당하고 이렇게 하면 사법부 기능도 독자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독립협회는 국민주권론을 강조하였고 독립협회의 일부 진보적인 세력들이 구상한 새로운 국가상은 공화제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독립협회의 주권론은 군주가 상징적 존재로만 있고 주권이 완전히 국민에게 귀속되는 그런 국민주권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독립신문』 논설에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내용이 자주 나타나지만 왕권의 최고성 또는 전체성도 강조하였다.

이상재의 인식도 이런 큰 틀에서 파악될 수 있다. 당시 의회 설립운동에 깊숙이 개입했던 이상재를, 신용하는 “민족주의자였을 뿐만 아니라 선진적인 민주주의자”로 평가하고 있다.⁵⁰⁾ 이상재를 민주주의자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이상재가 현실을 고려하여 이상적인 대안으로 선택한 것은 민권과 군권이 동시에 강화된 상태에서 의회가 허용되는 입헌 군주 국가였다.

2. 민권과 군권의 균형

이상재는 국가의 운영원리로서 민권과 군권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취했다. 독립협회도 일반론적으로 군권과 민권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그러나 독립협회 내에서도 민권을 좀더 강조하는 견해, 군권을 좀더 강조하는 견해, 그리고 민권과 군권의 균형을 강조하는 견해가 함께 존재했다. 예컨대 독립협회내의 진보적인 인사들은 민권 쪽으로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들은 첫째 국민이 나라의 근본이며,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다. 둘째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관료는 국민의 종이며 임금의 신하로 보았다. 셋째 국민주권에 근거하여 국

50) 慎鏞廈, 『獨立協會와 月南 李商在』, 43쪽.

민은 정부를 비판하고 교체할 권리를 갖는다고 보았다. 국민에 의해 정부의 교체 권리까지도 주장한 견해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전혀 손색이 없는 국민주권론이라 할 수 있다. 독립협회 내에서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현실 속에서 독립협회의 노선은 좀더 중도적인 위치를 고수하였다. 이러한 중도적인 위치는 이상재와 같은 인물에 의해 뒷받침 된 것이다.

이상재는 1898년 11월 29일 개최한 관민공동회에서 결의한 만민결의안에서 “외국인에게 의부하지 않고 관민이 동심 협력하여 전제황권을 견고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엄격히 해석할 때 독립협회의 진보적인 인사들은 관료를 임금의 신하이지만 국민의 종이기 때문에 임금보다 국민이 위에 있다는 시각이었던 반면, 이상재는 민권과 황권 모두가 중요하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상재는 상정부서 (2)를 작성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도 국권을 공고히 하려면 황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국민의 힘이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권력을 발동한다고 해서 황권이 공고해 지는 것도 아니고 국권이 공고해 지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⁵¹⁾ 즉 황권과 민권은 동시에 강화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상재는 민권과 국권을 같은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는 독립협회 활동기에 남긴 기록은 아니지만 1900년대 초반에 남긴 기록에서 민중이 국가의 가장 기초이며 민중은 천부의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이 천부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해야 비로소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⁵²⁾ 즉 사람이면 이 천부의 권리를 당연히 향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재는 당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국권을 공고히 하는 일을 꼽았다. 국권을 공고히 하려면 황권을 존중해야 하고 황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 직권과 책임을 완수하는데 달려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부의 권력은 민중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파악했다.⁵³⁾

전택부는 이상재가 민권과 관련하여 인권과 국민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황권은 그 위에 있다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⁵⁴⁾ 그러나 이상재는

51) 李商在, 「上政府書 二」

52) 李商在, 「上政府書 二」

53) 李商在, 「上政府書 二」

54) 전택부, 『이상재 평전』(범우사, 2002), 95 쪽

황권과 민권을 동등한 위치에 두었지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보다 하위에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독립협회나 이상재나 모두 민권과 군권을 모두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세한 차이는 독립협회의 진보적인 인사들은 군권보다는 민권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상재는 군권과 민권의 균형에 방점을 찍었다는 정도일 것이다. 독립협회의 대다수 인사들과 이상재는 모두 민권을 신장시켜야 나라의 자주 국권을 지킬 수 있다고 본 점에서는 견해를 같이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자주하고 부강해 질 때 국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독립신문』에 나타난 민권 개념은 자유주의적 전통의 민권개념으로 자의적 권력 앞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들의 권리를 의미하였다. 서구적 민권 개념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명백히 드러난다. 이러한 긍정적 이해와 달리 『독립신문』의 일부 논설에서는 한국의 백성들은 민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민권을 백성에게 함부로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했다. 서구의 민권에 대한 피상적 이해 때문에, 『독립신문』에서는 군권을 정당화하는 경향과 민권을 강조하는 논조가 혼재하고 있다. 독립협회의 근대 국가건설론에서 애국과 충군의 문제가 충돌되는 양상을 그대로 표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여기에 있다. 이상재의 인식 속에서도 그 충돌양상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

이상재는 이런 충돌을 군권과 민권의 동시강화라는 방법을 통해 발전적 에너지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한 현실주의적 운동가였다. 그러나 민권과 군권이 서로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주의적 인식은 역설적이게도 현실속에서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당시 국가적 위기는 군주 혼자 힘만으로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백성들의 힘만으로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양자의 힘을 합치는 것 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본 이상재의 인식은 정확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상재가 처한 현실은 군과 민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 군주는 민을 믿지 않았고, 민은 적극적으로 군주를 따르지 않았다. 국권을 수호하는데 군과 민이 협력했다면 위기 극복의 출로가 모색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군과 민이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국권 상실의 길로 내달리게 되었다. 현실 속에서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지만 이상재는 민권이 신장되면 국가가 부강해지고 군권도 강해진다는 민권군권 동시강화론을 주장했다.

3. 실천운동

입헌군주국가를 수립하려는 이상재의 노력은 의회설립운동으로 표출되었다. 삼권분리를 가능케 하는 정부형태는 국민국가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의회의 존재는 삼권분리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운동에서 삼권분립론이 강하게 대두되었고, 민권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다. 의회설립론은 국민주권 이념의 제도화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독립협회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은 근대 국가건설론의 내재적 한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립협회나 이상재가 구상한 의회는 하원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먼저 독립협회 회원 중심의 상원을 개설한 다음 점차로 하원까지 개설하는 것이었다. 즉, 독립협회의 의회설립론은 의정부 자문기관인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하려는 구상이었다. 이 안은 수구파 관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월 4일 중추원 관제로 공포되었다. 의회설립론은 민권에 기초해 국민의 힘으로 자주독립을 지키려는 민권사상과 독립사상이 통합되어 제한적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독립협회의 의회는 신분의회의 위상을 뛰어넘는 근대적 의회는 아니었다. 특히, 황국협회가 하원 개설을 주장하자, 일부 개화세력은 일반민중이 정권담당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하원 개설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는 당시 현실정치적으로 볼 때 지방에서는 독립협회가 수구파 보다 약세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상재의 인식은 군권과 민권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당시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상재가 민을 강조했지만 독립협회는 지방에서 수구파보다 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현실에 갇혀있었다. 민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을 대표하는 하원을 개설해야 하지만 하원을 개설하면 수구파의 정치권력이 강해진다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하원개설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없었던 갈등상황이 당시의 현실이었고 이상재는 이 현실의 벽을 돌파하지 못했다.

현실속에서 한국최초의 의회를 개설하지는 못했지만 이상재는 독립협회를 대표하여 의회설립 초안을 작성한 인물로서 의회설립을 이론적으로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설립을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간 실천가였다. 여기서 그의 의회 설립운동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그의 실천과정을 조명해 볼 것이다.

그는 만민공동회 운동을 성공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을 한발 물러나도록 하였고, 이러한 국제세력균형이 이루어진 시기동안에 의회를 설립함으로써 민권과 독립의 기초를 튼튼히 하려고 했다.⁵⁵⁾ 이상재는 1898년 10월 24일 이진호, 정교등과 함께 중추원 관제개편안을 작성 하게 되었으며, 독립협회는 이 안을 협회의 안으로 채택하여⁵⁶⁾ 의회 설립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고종이 이 안 중에서 일부를 수정 지시하여 독립협회가 전체 50석 중에서 17석만을 갖도록 윤치호에게 압력을 가하였다. 이때 이상재와 의논하고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윤치호는 원래 독립협회의 결의대로 밀고 나갈 수 있었다.⁵⁷⁾ 이상재가 주장한 것은 독립협회에 25석의 민선의관 자리를 모두 주든지 아니면 황국협회에 25석의 의석을 모두 주든지 양자택일 하도록 하는 안이었다. 황국협회는 25석을 모두 받아서 중추원을 운영해 나갈 수 없다는 최종 의견을 내었는데 이러한 저간의 상황 판단은 이상재가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⁸⁾

이상재는 독립협회의 중추원개편안을 작성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관민 공동회에서 6개 사항을 통과시켰다. 이상재는 이 관민공동회에 참가한 박정양을 설득하여 6개 사항에 “可”자를 쓰고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며 이로 해서 10월 30일 황제는 5개 조항에 달하는 조칙(詔勅)을 내려 보냈다. 이상재의 안을 기초로 11월 4일 중추원 신관제가 공포되기에 이르렀다.⁵⁹⁾ 이상재의 중추원 개편안에는 독립협회가 민선의관 25석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정부안에는 독립협회란 표현 대신에 인민협회로 바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이상재가 기초한 중추원 개편안이 반영되어 한국 최초의 의회설립법이 공포된 것이고 상원이 설립되기 직전단계에 이르렀다.⁶⁰⁾

비록 이 법이 조병식 등 수구파의 방해로 실시되지 못했지만 의회설치에 대한 이상재의 생각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독립협회 활동이후에 이상재가 작성한 상소문에도 이러한 생각의 단편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상소문을 통해

55) 慎鏞廈, 「獨立協會와 月南 李商在」, 46쪽.

56) 李光麟, 「月南 李商在」, 258쪽

57) 鄭喬, 『大韓季年史』(宇鍾社, 1957), 404쪽

58) 慎鏞廈, 「獨立協會와 月南 李商在」, 53쪽.

59) 李光麟, 「月南 李商在」, 258쪽

60) 慎鏞廈, 「獨立協會와 月南 李商在」 57쪽

“즉시 각의를 경유하여 각국의 입헌제도에 따르고” 특히 “국민에게 국사를 의논하는 권리”를 부여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반포⁶¹⁾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국사를 의논하는 권리”는 의회활동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상재의 의회 설립운동은 현실적인 한계로 완전한 결실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의회를 설립하고자 한 최초의 운동이었고 부분적이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근대화 운동의 일환으로서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근대적 입헌 군주 국가건설의 좌절

이상재의 삶과 활동에서 독립협회기는 중요한 분기점을 이룬다. 이상재는 책상에 앉아 고민하는 사상가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사상가였다. 관료로서 평온한 삶을 살수도 있었지만 체제에 비판적인 활동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의 젊은 시절의 삶과 고민의 과정에서 독립협회라는 큰 바다를 거치면서 한국사회의 지도자로서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독립협회 활동을 거치면서 이상재는 당시 한국의 위기를 자립과 자수의 결여에서 찾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주독립론과 자강론을 주장함으로써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초석을 놓았다. 이상재는 자주독립은 군과 민이 합심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매우 의미 있는 통찰력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이상재의 자강론은 구체적인 실력양성단계의 실천운동에 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으며 외국에 대한 비 자주적 이권양여를 비판하는 수준이었다.

이상재의 활동 중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의회설립운동이다. 그의 활동이 결실을 맺어 의회 기능을 갖춘 군주 국가가 탄생하기 직전단계까지 도달하였으나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다. 이상재의 노력은 상원에 국한된 의회 개설운동으로 “국민주권”을 완전하게 구현하는 상하원 또는 하원 중심의 근대적인 의회로 까지 발전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이상재 개인의

61) 李商在, 「上政府書二」

한계라기 보다는 상원조차도 수용하지 못한 당시 현실의 한계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상재는 근대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군권과 민권의 긴장을 해소하고 양자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양자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독립협회의 진보적인 인사들은 군보다는 민이 위에 있다는 시각이었던 반면 이상재는 군과 민이 모두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군권과 민권이 동시에 강화될 때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군민이 힘을 합칠 때만이 외세의 내정간섭을 물리 칠 수 있다고 인식한 이상재의 민권·군권 동시 강화론은 당시 상황에 부합하는 현실주의적 인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독립협회안에서도 서로 분명히 구별되는 이상국가상이 혼재하고 있었다. 입헌군주제로부터 공화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국가상이 주장되고 있었다. 일부 진보적인 인사들은 이상적인 국가상으로 공화제에 바탕을 둔 근대적 국민 주권 국가를 설정하였고, 이상재는 이보다 보수적인 입헌 군주제를 설정하였다.

이상재가 왜 입헌군주제를 이상적인 국가상으로 설정했는지 근원을 밝혀주는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다. 추론컨대 미국에서의 견문과 독립협회의 활동을 통해 입헌군주제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입헌군주제를 수용한 이상재는 독립협회 활동을 통해 입헌군주국가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상원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의회설립의 직전단계 까지 도달할 정도로 현실속에서 열심히 활동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입헌 군주국가를 건설하는데는 실패하였다.

이상재가 활동할 당시 독립협회내에서 일부 진보적인 인사들이 공화제를 주장했지만, 이런 주장은 독립협회가 탄압받는 빌미가 될 뿐이었을 뿐 독립협회의 공식적인 활동목표는 아니었다. 이런 사실로 볼 때도 이상재의 입헌군주제가 당시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성 있는 이상적인 국가상이었으며 독립협회의 실질적인 활동 목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에서 공화제 구상이 한 단체의 공식적인 활동목표로 자리잡는 것은 1907년 신민회가 등장하고 난 이후의 일이다. 신민회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공화제 국가 수립을 공식적인 활동목표로 삼게 되는 것이다. 이상재의 입헌군주제 구상은 군주국가로부터 신민회의 국민주권에 기반한 공화제 국가 구상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재연, 『근대한국사상사연구』 서울: 미래사, 1986.
- 강재연, 『한국의 근대사상』 서울: 한길사, 1988.
- 공용배, 「논설분석을 통해서 본 『독립신문』의 역할과 성격」 『언론과 사회』 제4호, 1996.
- 김명구, 「월남 이상계의 기독교 사회운동과 사상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김민환, 「『독립신문』의 논설내용분석」 『신문과 방송』 136호, 1982.
- 金珉煥, 『開化期 民族紙의 社會思想』 서울: 나남출판, 1995.
- 김복수, 「『독립신문』의 경영」 『언론과 사회』 제14호 겨울, 1996.
- 김신재, 「독립협회의 정치사상연구: 정체론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8.
- 김신재, 「『독립신문』에 나타난 ‘삼국공영론’의 성격」 『경주사학』 제9집. 동국대 학교, 1990.
- 김영국, 「한말 민족운동의 계보」 『한국정치사상』 서울: 박영사, 1991.
- 김영희, 「『독립신문』 발행주체의 언론사상」 『언론과 사회』 제14호, 1996.
- 김옥균·박은식·신채호 외, 이민수 외 역. 『한국의 근대사상』. 서울: 삼성출판사.
- 김유원, 「영문판 『독립신문』의 논조에 관한 연구: 논설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김유원, 『100년 뒤 다시 읽은 독립신문』 서울: 경인출판사, 1999.
- 金乙漢, 『月南先生逸話集』 서울: 京鄕新聞社, 1956.
- 김을한, 『월남 이상계 일대기』 서울: 정음사, 1976.
- 김주성, 「김옥균, 박영효의 자유주의 정신」 『정치사상연구』, 제2집 2000.
- 김현철, 「박영효의 보민과 민권신장 연구」 『정치사상연구』, 제2집 2000.
- 독립신문 영인본간행회 편, 『독립신문』 서울: 갑을출판사, 1991.
- 려중동, 『고종시대 독립신문』 서울: 형설출판사, 1992.
- 文一平, 『韓美五十年史』 서울: 朝光社, 1945.
- 문종명,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의 비교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 신복룡, 『한국정치사상사』 서울: 나남, 1997.
- 신복룡, 『한국의 정치사상사가』 서울: 집문당, 1999.
- 신용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서울: 한국일보사, 1975.
- 신용하, 『독립협회연구』 서울: 일조각, 1976.
- 慎鏞廈, 「獨立協會와 月南 李商在」 『月南李商在研究』 서울: 路出版, 1986.
- 신용하, 『독립협회와 개화운동』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0.

- 申一澈, 「開化期知識人 李商在論」 『月南李商在研究』 서울: 路出版, 1986.
- 안외순, 「조선에서 민주주의 수용론의 추야 최한기에서 독립협회까지」 『사회과 학연구』 제 집 서강대, 2000.
- 안외순, 「19세기말 조선에 있어서 민주주의 수용론의 재검토」 『정치사상연구』 제 집 봄호 2001.
- 안형수, 「독립협회서」 『신동아』 별책 부록, 1967.
- 유영렬, 「독립협회의 민권사상 연구」 『사학연구』 제22 집, 1973.
- 유재천, 「『독립신문』의 국문판과 영문판 논설 비교분석」 『언론과 사회』 제4 호, 1996.
- 윤병석 외, 『개화운동과 갑신정변』 서울: 삼성미술문화재단, 1981.
- 윤치호 송병기 역, 『윤치호일기 1』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 이광린, 『한국개회사상연구』 서울: 일조각, 1979.
- 이광린, 『한국개회사연구』 서울: 일조각, 1985.
- 李光麟, 「月南 李商在」 『開化期の 人物』 서울: 延世大學校 出版部, 1993.
- 이나미, 「독립신문에 나타난 자유주의 사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박사논문, 2000.
- 李商在, 「獨立門建設疏」.
- 李商在, 「辭內閣總務局長疏」.
- 李商在, 「上政府書(二)」.
- 李商在, 「上政府書(一)」.
- 李時琬, 『月南李商在』 서울: 月南社會葬委員會, 1929.
- 이정식, 『한국민족주의의 운동사』 서울: 미래사, 1986.
- 李鍾殷(역), 『현대 정치이론의 이해』 서울: 나남, 1991.
- 이춘선, 「독립신문과 한국근대화 운동에 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 이택휘, 『한국정치사상사』 서울: 전통문화연구원, 1999.
- 전복희,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구한말을 중심으로』 서울: 한울, 1996.
- 전택부, 『월남 이상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7.
- 전택부, 『월남 이상재의 생애와 사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 전택부, 『이상재 평전』 서울: 범우사, 2002.
- 鄭喬, 『大韓季年史』 서울: 宇鍾社, 1957.
- 정낙근, 「한말 개화지식인의 대외관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92.
- 정낙근, 「대한제국기 근대적 지식인의 외교론」 한국정치학회 엮음 『한국정치의 재성찰 전근대성 · 근대성 · 탈근대성』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6.
- 정명규, 「독립신문의 국민교육전개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정진석, 「영국기자 오시와 『독립신문』의 최후」 『신문과 방송』 315 호, 1997.
- 조희각, 「한말 개화세력의 정치운동의 민중화과정에 관한 연구: 특히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주진오, 「독립협회의 대외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국제관계와 관련하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주진오, 「독립협회의 사회사상과 사회진화론」 『한국사학논총: 손보기박사회갑기념』 서울: 지식산업사, 1988.
- 주진오, 「19세기 후반 개화 개혁론의 구조와 전개: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주진오, 「독립협회의 개화론과 민족주의」 『현상과 인식』 68 호, 1996.
- 채백, 「『독립신문』의 성격에 관한 일연구: 한국 최초의 민간지라는 평가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연론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연론 I』, 1992.
- 최덕수, 「독립협회의 정체론과 외교론연구」 『민족문화연구』 제3 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8.
- 한국언론학회 언론사연구회 편, 『독립신문과 한·중·일 근대 신문의 생성』 서울: 한국언론학회 언론사연구회, 1996.
- 한홍수, 「독립협회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주의·민주주의운동의 초기 현상 1896~1898」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3.
- 한홍수, 「독립협회의 집단화과정」 『사회과학논집』 제7 집, 1970.
- 한홍수, 「독립협회 회보의 내용분석」 『사회과학논집』 6,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3.
- 韓興壽, 『近代韓國民族主義研究』 서울: 延世大學校出版部, 1977.
- Spragens, Jr., Thomas Arthur, *Understanding Political Theory*. New York: St. Marin's Press, 1991.

● 투고일 : 2003. 2. 19

● 심사완료일 : 2004. 4. 12

● 주제어(keyword) : 이상재(Lee, Sang-Jae), 국가건설(thoughts of state building), 독립협회(Independence Society), 입헌군주제(constitutional monarchy)